하나님 이름의 전매권 쟁탈전

(열왕기상 22:13~40)

19.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20.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21. 한 영이 나아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22.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23.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24.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
25.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 날에 보리라
26.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27.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 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28.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대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이름의 전매권 쟁탈전>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하나님 이름의 전매권 쟁탈전'
'쟁탈전'이라는 말은 19세기 제국주의가 온 세상에 식민지를 건설할 때에, 유럽이 아프리카 사람들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제멋대로 땅을 분할하여 식민지 삼는 과정을 일컫는 말입니다.
요즘은 아프리카 분할 쟁탈전의 양상이 달라져서 주체가 유럽에서 아시아로 바뀌었습니다.
중국이 아프리카의 자원을 가져오는 대신에 각국에 인프라들을 제공해 주는데 도로 항만 철도

등을 위해 100만 명의 중국인이 아프리카에 상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중국보다도 앞서서 1990년대 초부터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일본아프리카 공동 회의를 주관해왔습니다. 최근에는 6차 회의를 하면서 아베 총리가 무려 150명이 넘는 기업의 총수들을 데리고 현지방문을 해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원조와 차관을 약속하고, 인도도 아프리카 동부에 수백만 명이 거주하면서 인도아프리카 정상 회의를 매년 정기적으로 갖고 있다고 하고, 터키도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2050년이 되면 아프리카의 인구가 25억 명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프리카가 지구상 최후의 거대시장이 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쟁탈전이라는 말은 아프리카를 먹기 위한 제국주의의 몸부림에서 나온 말인데, 선민의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놓고 벌이는 쟁탈전이 있어왔습니다.

이방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것으로 삼기위해 쟁탈전을 벌이지 않습니다. 선민의 세계 안에서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쟁탈전을 벌이게 됩니다.

아프리카에서 쟁탈전이 벌어지는 이유는 무한한 자원과 시장이라는 경제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선민의 세계 안에서 벌어지는 하나님 이름의 쟁탈전도 경제적인 이권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가능한 서비스업이 있습니다.

그 서비스업으로 편하게 먹고 살려면 하나님 이름에 대한 전매권을 획득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름의 전매권을 획득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고용창출이나 재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에 선민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 이름의 전매권을 놓고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람 정복 출정 전에 북 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과 동맹을 맺은 남 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듣는 것이 온당하다'는 제안을 합니다.

이에 아합이 사백 명의 선지자를 궁으로 불러서 묻자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왕의 아람 정복을 하나님께서 옳다고 허락하셨으니 올라가서 취하소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보기에 그들의 모습이 영 미덥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지자는 없냐고 묻자 미가야 선지자가 있는데 늘 쓴 소리만 한다고 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기대할 수 있느냐며 재촉하자 아합은 울며 겨자 먹기로 신하를 보내 미가야를 부릅니다.

13절에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 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라고 권유를 하는데 이 말이 재미있습니다.

신하가 선지자에게 가서 다른 모든 선지자들이 왕에게 길한 말을 하니 당신도 가서 왕의 기분을 위해서 길한 말을 해야 신상에도 좋으니 맞춰주라고 합니다.

이 말이 뜻하는 것은 선민의 세계에서 대대로 말씀을 전하는 직종에 속한 사람들에게 요구되

었던 것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세의 흐름을 따르라는 것이고 주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에도 흐름이 있고 대세가 있다는 것인데 이 대세에 속하지 않으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본문에서 계속 보았듯이 이 '대세'라는 것은 선민의 마음이 기쁨과 만족을 얻겠다고 이 세상 것들을 부여잡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칭의를 해주는 말씀입니다. 즉 선민의 마음과 세상 것의 결합 상태에 대한 칭의를 부여하는 서비스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기쁘고 만족하고 자식을 성공시켜서 행복하고 기뻐해야겠다는 선민들을 기분 좋게 하고, 그들의 마음이 세상과 결합하는 것을 고무적이고 격려가 되는 희망을 줍니다. 또 그 희망을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약속을 줍니다.
이러한 서비스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당신의 마음이 이 세상과 결합하여 행복하려는 그 당신의 열망은 옳은 것이고,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열망을 성취시켜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비스업을 위해서는 하나님 이름의 사용권이 있어야하고,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 대세를 따를 결심이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교인을 내 교인으로 만들고 그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교인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에 그 마음이 결합된 상태를 가만히 보고, 세상 것과 결합된 상태에 대해서 길르앗 라못에 대한 아합의 마음의 열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 열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하고 헌금하고 기도생활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힘으로 당신을 밀어주실 것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행위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전매권을 휘두르며 칭의를 남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돈이 되고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는데 대세의 흐름에 순응하겠다고 하는 자들에게 선지자의 직위를 주고, 그들이 또한 여호와 하나님 이름의 사용권을 얻어서 선민들의 기분을 맞춰주는데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가 본문에서 나옵니다.
엄마가 자녀를 잘 키워서 기쁘고 행복하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아서 우울하고 근심하고 답답해합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갖지 못해서 근심하고 답답해하는 아합의 심정이 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자녀를 잘 기르고 싶어 하는 열망을 가진 부모들을 위해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를 열어서 자녀 잘 키우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같이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자녀에 대한 마음이 죽고 자녀에 대해서 걱정하던 마음만큼 하나님을 가지기 위해 애쓰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를 잘 키우려면 잘 믿으면 된다고 서비스업을 합니다.

본문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에 대해서 미가야의 독특한 어법을 통해서 말씀해주십니다.
17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 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양이 목자가 없으면 무방비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이 17절의 한 구절에 기가 막힌 반전이 있습니다. 이제 전쟁을 하러 올라 갈 것이고 아합은 죽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목자를 잃은 양 같은 상황에서 양들이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합니다. 즉 왕이 죽는 것이 백성들의 평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의 마음이 세상과 연합해 있는 상태에서 왕 노릇을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백성에게 더 평안한 상태를 주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전매특허 낸 선지자들은 없느니만 못한 목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이 옳다고 칭의를 허락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용해봅니다. 가장이 가정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야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가장이 나가서 열심히 일하다 죽었는데 오히려 가족들이 평안해진다는 말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가장은 돈을 많이 벌어서 가족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지만 그 마음은 돈과 연합된 상태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기쁠 수 있다고 믿으며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고, 세상의 돈과 연합된 상태로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미가야 선지자는 이러한 마음에 대해서 차라리 죽는 편이 가정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입니다.
돈밖에 모르는 가장이 아내와 자녀를 대할 때에 매일 돈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살면 자녀들도 돈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매일 돈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남편에게 전염되어서 아내도 돈 없으면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집 아줌마가 명품 백을 들고 다니는데 나는 명품 백은커녕 길거리에서 파는 백도 살수 없으니 화가 납니다. 이런 상태로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이, 이 세상 것을 가져야만 기쁘고 만족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세상과 결합한 상태에서 살면 내가 주변에게 독이 됩니다. 내가 남편이면 아내에게 독이 되고, 내가 아내면 남편에게 독이 되고, 내가 아버지이면 자식에게 독이 되고, 내가 선생이면 제자에게 독이 됩니다.
그러므로 미가야가 지적하는 것은 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칭의를 강요하고 칭의를 제조하

고 칭의를 남발하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키는 분이 실재하시는 곳은 하늘이기 때문에 그 하늘에 우리 마음을 보내서 하나님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갖기 위한 쟁탈전을 벌일 필요가 없습니다. 70억 인구가 하나님을 무한하게 가질지라도 하나님은 모자라는 분이 아니고 고갈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가져야지 왜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쟁탈전으로 벌이냐는 것입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과 결합한 교인들의 마음에 칭의를 부여하면서 당신이 원하는 돈을 얻을 수 있고, 당신이 원하는 건강을 얻을 수 있고, 당신이 원하는 형통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마치 논란이 되고 있는 가습기세정제의 독성을 흡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돈 돈 하며 살고 있는 장로님에게 '장로님! 돈 돈 하시다보면 망할 것이고, 그러는 동안에 장로님 집안에는 평안은 없습니다. 장로님이 자녀들을 다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장로님이 죽는 것이 자녀들에게 득이 됩니다.'라고 하는 쓴 소리는 할 수 없더라도 목사님이라면 이러한 심정과 깨달음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문 19~23절에서 미가야가 아합 왕에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24절에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라고 합니다.
사백 명의 선지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아합은 좋다고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거짓 영을 그들에게 보내어 아합을 죽이려 하심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가난은 죄'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와 같은 거짓 영에 의한 것입니다. 가난을 죄라고 말하는 그것이 죄입니다.
돈이 나의 행불행이나 구원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가난이 죄라면 가난에서 빠져나와야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것이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이런 말들이 사이비 시비가 있다가 꿩 잡는 게 매라고 이들의 세력이 너무나 강력해져서 정통교단으로 흡수되어 버렸습니다. 대세에 굴복해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 독이 한국교회에 만연하게 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짓 영을 가리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마음이 결합해 있느냐, 이 땅의 것과 마음이 결합해 있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결합은 결속이고 결속이 곧 믿음입니다.
내게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될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 것이라면 갓 태어난 아이를 향해 아름다운 시를 지을지라도 그것은 죄가 됩니다. 그것을 목사님이 아름답다고 말하면 거짓 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아기를 나보다 사랑할 바에는 네 손으로 제단 위에 올려 죽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잔인한 분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마음을 드리면 내 마음 자리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가정을 위한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고, 내 이웃을 위해서도 내 마음 자리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을 대하는 어떤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합 왕이 전쟁에서 죽지 않고 거꾸로 십자가의 예표가 되는 성전의 번제의 의미를 기억하고 지성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돌판의 의미를 기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길르앗 라못에 대한 열망을 죽이고 판단과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번제단 앞에서 죽었다면 백성들 전체는 아합 왕의 마음자리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복을 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아합 왕은 차라리 죽는 것이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합은 계속해서 길르앗 라못이라는 세상 영토의 확장에 기쁨을 연결시켰기 때문에 선지자를 불러서 서비스업을 강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기분을 좋게 하라는 것이고, 그저 아첨만 하면 부족하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옳다고 칭의를 제조해서 공급해주는 서비스업자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비스업을 하며 고용과 창출의 기회가 만들어 집니다.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이유는 그 이름이 가리키는 분께서 하늘에 계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마음을 하늘로 보내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름의 전매권을 행사하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진짜로 마음을 하늘로 보내서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하는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쓴 소리로 여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 이름에 대한 쟁탈전이 벌어져서 인간세상의 조직적 체제하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전매권을 획득한 자들이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때리고 적대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선민의 입장에서 너무나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선민들은 그분을 죽였는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이름의 전매권을 독점하기를 바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과는 다른 말씀과 다른 행보로 사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전매권이 뿌리째 흔들려서 이득권이 위협받자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남발하는 교계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이득이나 사회적 위치인 월급과 재정적 지원을 약속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교인들의 마음이 세상 것과 결합된 상태에서 칭의를 제조공급해서 남발합니다. 이러한 거짓 영을 가려내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녀 때문에 걱정하는 집사님에게 예수님 믿으면 자녀가 잘 된다고 말해주면 이것이 거짓 영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라면 자녀가 말썽쟁이든 모범생이든 먼저 십자가에서 자녀에게 얽매인 마음이 죽어버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서 마음을 하늘로 보내서 하나님을 가지라고 말할 것입니다. 못나고 말썽쟁이인 자식을 만날 때에도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여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자녀의 말썽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보도록 해야 합니다. 자녀에 얽매이고 자녀로 인해 기뻐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이 진짜 목사이고 진짜 선지자인 것입니다.
가짜 선지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사용의 전매권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것은 서비스업으로 세상과 결탁된 교인들의 마음을 묵인하고 그들을 기분 좋게 만들어 돈을 벌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합 왕 때의 사백 명의 선지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키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의 공백에 모셔 들이고 가져서 충만하게 누리기 위해서 오늘도 십자가만을 생활화하게 하시며, 하나님 이름의 전매권을 가지고 칭의를 남발하는 거짓 영들에 대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